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딤후1:1)

⊗ 4대 실천강령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 올해 주요 교회행사 일정 발표

금년도 우리 교회 행사 일정이 발표됐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등 절기에 배 때는 감사예배와 함께 성찬식을 거행한다.

‘홍해작전’, ‘사명자대회’ 등 해마다 개최하는 행사들은 좀더 발전적인 기획과 실제적인 운영을 추구, 내실을 기할 것이다.

교회학교의 성경학교·수련회 등 계절학교는 방학을 이용해 진행되며 천국일꾼 양성을 위한 교사세미나가 봄과 가을에 각각 한 차례씩 열릴 예정이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주최하는 전국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3월과 9월부터 각각 제 17 학기와 18학기가 10주간에 걸쳐 개최된다.

집사·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는 5월 중 열리며 피택된 집사·권사는 소정의 교육을 거쳐 교회설립 9주년 기념일인 11월 26일

에 임직식을 갖는다.

한편 매월 첫 주 찬양예배는 각 부서가 주관하는 헌신예배로 드린다. 월별 헌신예배 주관부서는 도표와 같다.

월	헌신예배주관부서
2	교회학교 교사
3	여전도회 연합회
4	남전교회 연합회
5	중등부
6	고등부
9	대학부
10	청년부
11	찬양대

찬양예배 시간에는 다락방 가족 소개와 특별 순서를 가진다. 또 새가족환영회를 통해 새가족의 신앙생활과 교회적응을 돕는 기회를 갖는다.

학습·세례식은 격월로 거행된다.

올해 안에 입당할 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는 새 예배당 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각종 기도회와 전도 운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할 예정이다.

### ▼2000년도 주요 행사 일정

1월	· 2일 / 신년감사예배 및 성찬식 · 2일 / 공동의회(예·결산 심의의 건) · 2일 / 순결서약식 · 3-7일 / 청지기수련회
2월	· 교회학교별 겨울수련회, 겨울성경학교
3월	· 육군사관학교 세례식 집례 · 제 17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 개강 (10주간 매주 월요일)
4월	· 23일 / 부활절 예배(성찬식)
5월	· 교구일꾼수련회 · 가족찬양대회 · 7일 / 어린이 주일 · 7일 / 특별제직회(후보 선거에 관한 건) · 12일 / 교회학교 교사 특강 및 기도회 · 14일 / 아버지 주일 · 21일 / 집사·권사 선거
6월	· 6일 / 홍해작전 개전 · 6일 / 한마음·한가족 축제
7월	· 2일 / 맥추감사절(성찬식) · 교회학교별 여름수련회, 여름성경학교
8월	· 농어촌 전도대 파송
9월	· 제 1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 (10주간 매주 월요일)
10월	· 8일 / 비전 2020운동 시작 (11월 26일까지 50일간) ·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바자 · 성경임송대회 예선
11월	· 성경임송대회(본선) · 12일 / 교회학교 교사 특강 및 기도회 · 19일 / 추수감사 찬양예배 · 26일 / 추수감사절·교회설립9주년(성찬식) · 26일 / 권사·집사 임직식
12월	· 3일 / 제직 및 교구일꾼 임명식 · 10일, 13일 / 찬양대원 임명식 · 19일 / 교회학교 교사 임명식 · 17일 / 성탄축하 찬양예배 · 24일 / 성탄축하의 밤 · 25일 / 성탄절 예배 · 31일 / 특별제직회(결산과 예산심의)

## 태신자 전도 연중 계속

태신자전도가 연중에도 계속된다.

어머니 배 속에 있는 아이를 태아(胎兒)라고 하듯이, 태신자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로 하고 마음에 품은 대상을 말한다. 또한 태신자전도란 주변에서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태신자를 결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획 당는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10월 초에 시작하는 사명자대회 때마다 태신자의 신청을 받고 온 교회가 기도로 협력하면서 50일 간 전도에 힘써왔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올해부터 이 일을 사명자대회 기간뿐 아니라 일년 내내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주간에는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정하고 배부받은 태신자 카드를 작성한다.

태신자 카드는 보관용과 제출용이 있다. 보관용은 개인이 자신의 태신자를 기억하며 기

도하기 위한 것이고, 제출용은 교회에서 태신자들을 관리하고 각종 유인물을 발송하는 데에 활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제출용 태신자 카드는 우편물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작성한 태신자 카드는 다음 주일(1월16일) I, II, III부 예배 헌금시간에 제출하거나 사무국 혹은 교구 목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 “100교회 운동에 참여합시다”

농어촌미자립 교회를 돕는 ‘100교회 운동’의 후원자 접수를 받고 있다.

‘100교회 운동’은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결연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것으로 한 가정이나 개인별 혹은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참여할 수도 있다.

전도위원회에서는 후원자와 결연교회를 확정짓기 위해 참여할 가정이나 기관에서는 속히 접수를 마쳐 줄 것을 당부했다.

이사야 강해

애굽을 의지하지 말자

이사야 31장 1-5절

이사야서 28장으로 31장은 반복해서 무서운 책망의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에브라임을 취하지 말라, 아리엘과 같이 되지 말라, 패역한 자식들이 되지 말라 그리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죄

말(馬)은 물질을 상징하며, 물질은 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에는 말과 병거와 마병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과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할 때 바로에게는 600대의 병거가 있었고 역대하에 나오는 시삭 왕에게는 200대의 병거와 6만명의 마병에 있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물질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피상적인 인간의 힘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을 우상화했습니다. 잘 훈련된 마병은 믿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을 마치 하나님 보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3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약속은 파기될 수도 있고 더 강한 군대에 패할 수도 있습니다.

애굽을 신처럼 섬기고 그들을 의지한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참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공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의를 이루시는데 그 의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떨시켰습니다. 그들은 애굽과 동맹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어겼습니다(신 17:16).

양모(1절)란 히브리어로 쳐다본다는 뜻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은총을 구하지도 않고 도움을 원치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의 큰 문제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총명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시 146:3). 인간에

니다. 그러나 그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3절).

육체란 아무리 건강해도 오랫동안 일을 하면 피곤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 말이 강해도 긴 여행엔 무용지물이 되며 전쟁터에 나가면 상처를 입기도 하고 사로 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것은 육체인 말이 아니라 영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번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와 같이 나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썩을 것이라 새가 날개 채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사 31:1-5)



이종운 목사

게는 인간을 도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2. 화 있을진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2절).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굽을 찾아가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며 지혜를 총동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 길을 찾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만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 "여호와께서도" 라고 하며 풍자적인 어법을 사용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언대로 변치 않고 악행자의 집, 곧 유다를 치시고 행악을 돕는 자, 곧 애굽을 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유다의 죄로 인하여 애굽까지 하나님의 치심을 받게 됩니다. 죄는 죄를 몰고 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3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섬겨야 할 자를 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도울 능력도 없고 돕기 위해 즉시 나타나지도 않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애굽은 강한 말들이 많이 있었던 나라입

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시는 날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지고 엎드러지게 됩니다(3절).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빼앗으려고 여러 명의 목자가 덤벼들지라도 사자는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하심과 그의 구원 사역은 철저하신 것입니다.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5절).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새가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함 같이 안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가지시고 택한 백성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품듯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호와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시 28:7).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시 46:1).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절망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0년 우리 부서는

# 새가족부가 조금 튀겠습니다

민순구(장로, 새가족부 부장)

“새 성전 시대를 준비하는 새가족부”라는 표어 아래 2000년을 맞은 새가족부가 이전의 수동적 새가족 양육이라는 틀을 깨고 정교사와 협력교사가 한 팀이 된 복수교사 양육제도 도입, 미등록 성도에 대한 적극적 등록 캠페인 전개, 원입 성도가 세례를 받을 때까지 양육하는 장기 양육제도 실시, 소속 교구 다락방 출석 전까지 새가족 다락방을 시험 운영하는 등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새 성전 시대를 준비하지 않는 부서가 없겠

습니다마는 구름떼처럼 몰려 올 새가족들을 무리없이 받아 잘 양육해서 새성전의 일꾼으로 정착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새가족부로서는 연초부터 새로 영입된 교사들과함께 긴장감 속에 이 과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금요일 교사수련회를 갖게 되며 1월에는 ‘새가족 전화 심방’에 대한 강의(강사 조준택 집사)와 새가족 교사를 위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또 새가족등록대를 교회 정문 맞은 편에 설치하고 환영 현수막도 달고 예

배 후에는 새가족부 교사들이 어깨에 띠를 착용하고 기존 새가족들과 인사도 나누며 미등록 교인들에 대한 등록 권유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가족부 교사들은 맡은 새가족을 위해 “하루 한 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 심방하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로 약속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가족이 우리 가족이 되려면 어딘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때로 이분들이 여러분의 아픈 곳에 뿌리를 내려려 할지라도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창에 찢리신 예수님의 허리에 그 뿌리를 내린 자들이 아닙니까? 또 새가족부가 조금 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를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의 연합한 뿌리들이 자리를 잘 잡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 일꾼 삼으신 주님께

최정자(권사, 제 2권사회장)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무는 이 시간, 저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 나이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많은 사랑과 은혜로 올 한 해를 마치는 문턱에서 있는 이 순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손을 잡으라고 하시며 저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서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지게 하시고 연합한 저에게 용기를 주시어 당당히 걸을 수 있게 하시며 세상의 어떤 칭찬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더욱 소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되기까지 60년이나 걸렸나봅니다. 웬 사랑인지요. 한 세기가 열리는 새해에는 주님께서 제게 더욱 많은 일을 또 명령하셔서 권사회 회장이라는 귀한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막상 주님이 허락하셨을 때 감당치 못할 것만 같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앞섰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빌4:9)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배

가 되시는 많은 권사님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작은 힘이나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최선을 다하는 봉사자로서 기도의 어머니로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 맡기신 일에 늘 끊이지 않는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해에는 더욱 주님께 충성하며 그 말씀대로 좇아 살게 해 주시고 모든 임원들에게도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서울교회의 어머니들로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서 헌신하며 봉사하게 해 주옵시고 오고 오는 날들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는 서로의 개성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기술을 익혀야 되겠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고정된 지식보다는 스스로의 목상과 반영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을 잘 용서 하듯 우리 회원들의 잘못도 용서합시다. 우리 전도회는 모성애적인 사랑을 가지고 큰 꿈, 큰 이상, 큰 계획, 큰 행동을 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큰 책임을 진 자는 그 책임을 다할 때까지 불쌍한 자가 되지만 그 책임을 다했을 때에는 환영자가 됩니다. 하늘은 은사대로 능력을 주시고 능력대로 사명을 주시며 사명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이 맡기신 바가 아니면 인간이 하고 싶어도 해서 안되며 하늘에서 맡긴 바이면 인간이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아무리 세상이 주려고 해도 사람들이 받으려 하지 않고 구할 생각조차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것과 구하는 것은 인간들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 포도나무에 가지처럼

손재점(권사, 에스더전도회장)

에스더전도회원들께!  
우리는 서울교회 한 지체입니다. 지체가 붙어 있지 않으면 서로가 아프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도회원들은 서로 닮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달라요. 우리

에스더 회원님들, 우리의 삶은 마치 축구 경기 같아서 개인전이면서도 단체전입니다. 안된다 하지 말고 안하니까 안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자씨는 지극히 작지만 그 나무는 심히도 웅장한 거목이 되듯이 우리 에스더전도회가 심히 작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거목으로 자라게 해 주실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므로 열심히 모입니다.

예배위원의 새천년 맞이

# 소리없는 봉사의 아름다움을 위해

성준경(장로, 예배위원장)

새 천년이라 해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향해 복음으로 무장하고 전도의 사명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옛새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하루는 주님의 날로 정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마치신 후 처음으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그후 지상 명령이 전도의 사명과 이를 이루기 위하여 교육과 구제와 여러가지 사명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올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그 무엇도 무의 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예배위원은 찬양대원이나 교사같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경건 하고 질서있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 용하게 봉사할 따름입니다. 예배위원의 자리 는 자기를 나타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기의 맡은 임무만 다하면 되는 자 리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헌 신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른 무엇이 이보다 중요할 수 있었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 는 정문의 안내위원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서울교회를 대표해 온 교회 성도들을 맞이하 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내위원들 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따뜻하게 성도들을 맞이 해야 하겠습니다. 복 장은 물론 얼굴 표정, 말씨, 몸가짐 하나까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바치는 성

도들의 헌금을 담당하는 헌금위원들. 직접 하 나님께 드리는 일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 일 이 소중한 줄 알고 우리 헌금위원들은 예배 시간에 가장 앞자리에 앉습니다. 비록 가운으 로 몸을 가리우고 앞에 나오나 마음도 바쳐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지 돌아보고 매번 새롭게 다짐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 사하고 있는 음향실 담당 위원들. 하나님께서 는 그들의 봉사를 통해 목사님 말씀이 온 성 도들에게 들려지게 하십니다. 잘 하고 있는 지 잘못하고 있는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예배위원들 더욱 열심히 기 도로 준비하고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새 천년 새 예배당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봉 사할 수 있는 예배위원들이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락방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 오직 구할 것은 충성

조정식(집사, 상계2 다락방장)

대망의 새해를 맞이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교회 갱신 과 국가, 세계 복음화와 새 성전 건축을 위해 벽찬 마음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새해 들어 새 교회 입당을 준비하고 사명 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청지기 수련회에 참 석했습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 도할 것을 가르친 말씀을 배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과 둘째 생령 복음을 위해 전도할 것과 셋째 세워진 교구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써 교구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심방하며, 다락방을 두루 돌아보며 교구와 연합으로 모임을 갖도 록 해야 할 것을 배우며 다짐했습니다. 이 모 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가정들이 보다 더 모

임과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기초 단위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로써 새해에는 서울교회 모든 부서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새 롭게 부흥되는 열매를 맺었으면 합니다.

교구와 다락방은 작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함 께 나누며 작은지체로서 사랑을 나누는 곳이 기도 합니다. 오직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 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은 부지런히 감당 하며 올해에는 교구와 다락방이 보다 활성화 되기를 최선을 다해 기도할 것을 다짐해 보 니다.

### ■ 2000년도 비전2020운동본부 조직

- 지도장 정운돈 목사
- 위원장 이병생 장로
- 기획부 오광환 홍광엽 최임수 정세형
- 전도부 조정식 오·유식 조철기 김재근
- 후원부 이남성 장 덕 이우상
- 봉사부 최정자 최용걸 김관홍 김상욱
- 교육부 정호진 최차순 원영애
- 홍보부 이복규 성춘모 한정아 문형미
- 서기부 김규태 안정옥
- 회계부 최양진 박분옥

### ■ 동정 ■

- \* 송근화 · 이남용 성도(1교구) 가정은 4일 (화) 특녀했다.
- \* 정해진 집사(4교구)는 작년 12월 31일자로 사무국장직을 사임했다.
- \* 이번 주 식사는 오유식 집사 · 전정숙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 전춘자 권사 가정에서 식당에 미역을 기증 했다.
- \* 제1권사회는 10일(월) 새예배당 건축을 위 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 ■ 이종운 목사 방송실고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서성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0년도 우리 교회 행사들을 위해
2. 연중 계속될 태신자 전도와 비전2020운동을 위해
3. 농어촌100교회 운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 예배 및 집의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